

여야, 첫날부터 격돌...“권력도취 마귀” vs “총리 책임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증·참고인 채택 결렬·자료 제출도 공방
다주택·양평 땅 농지법 위반 의혹 쟁점
“주적이 누구냐” 안보관 둘러싼 공방도

여야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첫날인 25일 증인·참고인 채택과 자료 제출 상황을 둘러싼 언쟁을 시작으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승규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로 규정하며 “국회의 검증권을 완전 무력화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성남FC 뇌물 공여 의혹 대가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당시 네이버 수장이었던 김상환 전 대표이사 등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원천 차단으로 무산됐다”며 “여당이 덮어놓고 후보자 옹호에만 급급해 증언조차 거부한다면 청문회 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이 없다면 투명한 자료 제출을 실

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이 또한 거부당하고 있다”며 신속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 정쟁의 장을 만들 성남FC 관련 증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은 요구한 증인과 감정인들이 모두 수용돼야만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후보자와 관련 없는 선관위 관련 자료 요청이 가득 이었다”고 일축했다.

이어진 주 질의에서는 한 후보자의 다주택 논란, 양평 땅 농지법 위반 방지 의혹, 중소기업 업무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지명 후보인 소유 주택을 처분한 것을 두고 “너무 속보이는 행동”이라며 “국민께서 진정성을 믿겠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주택자를 마귀에 빗댄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 기준으로 다주택 마귀에서 벗어나셨을지 몰라도 우리 국민 기준으로 후보자는 권력이라는 자리에 도취해있다고 본다.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그런 권력 마귀가 됐을 뿐”이라고 맹공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서는 “(종로구의 자진시정 명령을) 1년 동안 몽했다”고, 양평 땅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양평군으로부터 법 위반이라는 것을 전달받았는데 왜 무시하느냐”고 물아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반박하고 한 후보자의 역량을 치켜세우며 옹호했다.

김동아 의원은 우정사업본부 확인 결과, 한 후보자 소유 양평 농지와 관련해 시정 공문이 발송되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맞받았다.

또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1세대 벤처기업을 글로벌 빅테크로 함께 키워낸 분이시고 여성 기업인으로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의 유리천장을 뚫어내신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큰 롤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의원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에 조금 더 신경 썼어야 한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졌긴 하지만 저는 앞으로 필요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한 후보자의 안보관을 둘러싼 설전도 벌어졌다.

한 후보자는 “6·25가 남침인가”라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북침”이라고 답했다가 김 의원이 재차 묻자 “죄송하다. 남침이다. 제가 긴장했다”고 즉각 정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주적의 개념을 거듭 물으며 “총리에 통과된다면 국방까지 책임지셔야 하는데 일반적인 적의 개념과 주적 개념을 구분 못하고 계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선원의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방부장관 후보자 아니냐”며 “남북관계가 발전되면 총리 회담도 할 수 있는 분에게 농담처럼 주적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전략산업 다극화...어디서나 공정한 성장”

수보회의서 “곧 국민께 보고드릴 것”

“수도권·지방 원전 모두의 성장시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더 나은 나라를 나아가기 위한 핵심 열쇠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현재까지의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좋은 변화의 태풍은 한순간에 미풍으로 그칠 수 있고 자칫하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도권의 기간 핵심 인프라는 그것대로 고도화해 나가고, 동시에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경제 기반을 구축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원원’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곧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재정과 산업·경제 인프라 구축 등 전방에 걸쳐서 지금까지 소외된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등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세부 투자 계획을 다음주에 청와대 주재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표할 것이라 관측이 재계에서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이 대통령이 투자 확대 지역으로 충청과 호남 뿐만 아니라, 영남, 강원, 제주 등까지 언급한 것은 지방 곳곳에 대한 고른 투자를 통해 핵심 전략산업 다극화를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수기자

李대통령, 文 前대통령과 내달 1일 오찬

與 당권경쟁 과열속 통합 행보 분석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7월1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는다.

김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일정을 소개했다.

이번 일정은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을 두고 세력 간 분열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지자들 사이

우르기 위한 통합 행보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국외에서 일정이 있는 관계로 이번 오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 대통령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도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수기자

조인철,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 강화 추진

국립공원 등 보호 가치가 높은 자연공원 내 오물 및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25일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5년(2021-2025년) 간 국립공원 내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반 산림이나 도심지에 적용되는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적으로 보호 가치가 더 높은 국립공원에 적용되는 ‘자연공원법’에서는 과태료 상한이 20만원에 불과해 처벌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인철 의원은 “현행법의 솥방망이 처벌로는 늘어나는 국립공원 내 암채 무단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를 타 법

률 수준인 100만원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중한 자연유산인 자연공원을 청정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순천시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

전남도는 25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여성의 내일(JOB), 함께하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2026년 제2회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열어 현장 채용과 미래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다.

박람회에는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정미순천시 시민복지국장, 조혜숙 순천YWCA 회장, 김현미 순천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구인기업, 구직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박람회에선 채용관, 취업준비관, 직업정보관, 특별관 등 총 70여개 부스가 운영됐다. 현장면접관에는 순천,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등 8개 시·군 30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사무직, 보건의료직, 제조·생산 등 직종에서 종사할 97명을 채용하기 위해 구직자와 면접했다. /김재정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415-중-211304호

건강검진

매일체크 ✓ 행복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광주)

